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07. Vol. 12, No. 4, 983 - 995

폭력적 데이트관계 지속에 관한 투자모델의 수정 - 이타적 망상을 중심으로

이 정 은 현 명 호
중앙대학교

유 제 민[†]
강남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데이트폭력 피해자가 폭력적인 데이트관계를 지속하는데 있어 투자모델에 이타적 망상이라는 변인을 추가하여 모델의 타당성을 살펴보았다. 투자모델은 개인이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만족도, 대안 여부, 투자 정도를 고려하여 자신의 헌신 정도를 조절하고 그것에 따라 관계지속여부를 결정한다는 이론이다. 이 모델은 결혼여부와 상관없이 어떤 친밀한 관계에도 적용된다는 장점이 있다. 이타적 망상 변인은 본 연구에서 새롭게 구성한 개념으로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이 파트너의 폭력적인 성향을 자신이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현실적인 믿음을 말한다. 서울,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데이트폭력을 경험한 20대 여성 227명으로부터 설문지를 수거하여 연구자가 설정한 절단점을 기준으로 110명을 데이트폭력 피해자로 상정하였다. 분석결과, 투자모델을 한국의 20대 여성의 데이트 관계에 적용하였을 때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존의 투자모델과 이타적망상을 추가한 새로운 투자모델을 구조방정식 모델검증을 통해 비교한 결과 새로운 투자모델의 설명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새로운 투자모델이 관계지속여부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그 예측력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추후 연구에서는 교제기간을 통제하고, 동성애 커플이나 기혼커플, 남자피해자, 대학생이나 직장인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수준이 다른 참여자를 대상으로 투자모델을 적용하여 타당성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주요어 : 데이트폭력, 투자모델, 이타적 망상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유제민, (446-702)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산6-2 강남대학교 교양학부, 전화: 016-282-7710, E-mail: pavlov2@kangnam.ac.kr.

Erickson(1950)의 정체감 발달(identity development) 이론에 따르면, 성인기의 발달과업(developmental task)은 애정을 삶의 원천으로 삼으며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성인기에 접어든 20대에게 이성교제 또는 데이트는 매우 중요한 발달과업이다. 하지만 친밀한 관계가 역기능적으로 작용할 경우에는 발달과업을 달성하는데 장애물이 되어 다음단계로 진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동시에 개인의 자아를 파괴할 수도 있다. 데이트폭력은 바로 그러한 장애물 중 한 가지이다.

Sugarman과 Hotaling(1989)이 지적했듯이, 데이트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은 의존적이고 친밀감이 높아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그러나 그만큼 불일치가 일어날 기회가 많기 때문에 폭력이 일어날 가능성이 증가한다. 실제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데이트폭력 가해 및 피해율이 높고 폭력으로 인한 피해정도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외국의 연구에서 데이트폭력 피해 비율이 높게 나타나듯이 (Makepeace, 1981; Shook, Gerrity & Segrist, 2000) 한국의 연구에서도 데이트 폭력 발생율이 높고 연구의 대부분이 여성피해자에 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92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에서 21%가 직접 폭력을 체험하였다고 보고하였다(김용미, 1996). 김정란(1999)은 대학생의 52%, 심리적 폭력을 포함하면 97.9%가 데이트 폭력을 경험하였다고 하였으며, 유선영(2000)은 여대생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파트너로부터 어떤 형태로든지 데이트폭력을 경험한 비율이 50%라고 밝혔다.

데이트폭력 피해자는 폭력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문제를 갖게 된다. 파트너의 신체폭력이 있

을 때는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고, 만성 동통장애, 위장장애(Coker, Smith, Mckeown, & King, 2000)가 생길 수 있다.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나 우울, 물질남용, 자존감의 손상, 공포, 불안을 겪는다는 보고도 있다(Resnick, Kilpatrick, Dansky, Saunders, & Best, 1993; Jasinski & Williams, 1998). 또한 폭력에 연루된 사람은 정서적 상처를 입게 되는데 여성은 남성피해자 보다 3배나 강한 심리적 상처를 입고(Makepeace, 1981) 정서적 스트레스를 받았다(Stets et al., 1989).

그 뿐만 아니라 데이트 폭력 피해자의 상당수가 관계를 종료하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피해자들의 보고에 따르면 이들은 관계를 끝내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고 토로한다(Follingstad, Breman, Hause, Polk, & Rutlaedge, 1991; Rosen & Bezold, 1996). 데이트 관계 내에 있는 커플이 결혼한 커플과 비교했을 때 자녀나 경제적인 중속으로 인한 구속력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폭력피해를 경험할 경우, 관계를 종료하지 않는 비율이 결혼한 커플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Choice & Lamke, 1997).

폭력적인 데이트관계를 유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설이 발표되었지만 아직 확실한 이론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얼마 전부터, Rusbult(1983)가 제안한 투자모델이 설명력이 높은 모델로서 주목 받기 시작했다. 투자모델의 지지자들은 개인이 데이트폭력을 경험한다고 해서 곧바로 관계를 끝내는 것이 아니며 폭력강도 역시 교제지속여부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 그들은 피해자가 실제로 겪는 폭력보다는 자신의 관계, 그리고 폭력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입증하였다(Arias & Pape,

1999). 따라서 투자모델에서는 개인이 데이트 관계에 투자한 정도, 만족도, 관계 유지의도 등을 살펴봄으로써 데이트 폭력 피해자가 폭력적인 데이트 관계를 종료하지 못하는 이유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다.

투자모델(그림1)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구체적인 요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Rusbult & Martz, 1995). 만족도는 개인이 관계에 대해 호의적으로 평가하는 정도를 말하고 투자는 시간이나 노력과 같은 심리적, 물질적인 자원을 얼마나 쏟아 부었는지를 의미한다. 대안은 관계에서 얻는 만족감뿐만 아니라 투자, 헌신이 가능한 다른 선택 안을 말하고, 마지막으로 헌신은 인지적, 정서적인 구성물로서 관계에 의존하고 연인과 정서적으로 연결되고 싶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욕구를 말한다.

투자모델이 개발된 이후 많은 연구자들이 투자모델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폭력적인 관계를 지속 또는 종료하는 이유를 설명하였다. 먼저 투자모델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연구에서 세 변인이 헌신 정도를 유의하게 예측하고 투자모델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Rusbult, Martz, & Agnew, 1998). 또한 세 변인과 헌신, 관계종료 여부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되었다

(Rusbult, 1983; Katz, Kuffel, & Brown, 2006). 이처럼 통계학적으로 투자모델의 내부구조가 입증된 것 뿐만 아니라 투자모델이 실제 데이트폭력 피해자의 관계종료/유지 여부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Rhatigan et al., 2005; Katz et al., 2006).

외국의 연구를 살펴보면 투자모델이 데이트폭력 피해자의 관계종료 여부를 타당하게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한국문화의 특성상 외국 의 경우처럼 자신의 폭력피해 경험을 공론화하지 못하므로 투자모델만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은 폭력경험을 친구, 가족에게 주로 이야기하는 반면(Stets & Pirog-Good, 1989), 한국의 데이트 폭력 피해자는 피해경험을 사적인 문제로 간주하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다(김정란, 1999). 이것은 데이트폭력을 경험한 피해자들과의 인터뷰 기문헌 연구와 미디어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이었다.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로 한국사회가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에 대해 개입을 꺼리고, 관대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향을 들 수 있다. 데이트 폭력을 경험한 피해자가 자신의 고통을 타인과 나누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움을 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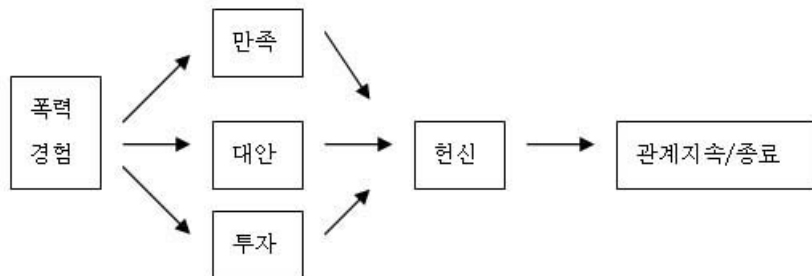


그림 1. 투자모델의 도식

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폭력적인 관계에 머무르게 되는데 이 때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과 관계를 지속하는 상황에 대한 태도와 행동을 합리화한다. 그 합리화 과정의 핵심적인 믿음으로 이타적 망상이라는 변인을 구성하였다. 이타적 망상이란 데이트폭력 피해자들이 객관적으로 자신의 데이트 관계를 평가하지 못하고, 연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통제력을 과신하며 현실적으로 자신이 연인의 태도와 행동을 바꿀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폭력적인 연인의 성향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말한다. 타인의 폭력성을 자신의 능력으로 바꿀 수 있다는 믿음과 같은 인지적 편향이 있는 피해자는 객관적으로 자신의 만족도, 대안, 투자정도 등을 평가하기 못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파트너가 변할 거라는 믿음이 있을 때 헤어지지 못하고(Gondolf, 1998; Schutte et al., 1987) 파트너가 다시는 폭력적인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였을 때 그것을 믿고 관계를 지속하려 하였다(Mills & Malley-Morrison, 1998; Ferraro, 1993). 이러한 이타적 망상은 폭력피해 아내들에게서도 나타났다. 위와 같은 결과를 통해 데이트폭력 피해자에게 있어 이타적 망상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폭력적인 데이트관계를 유지하는 피해자의 기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투자모델이 한국에서도 적용되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고 둘째,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망상이라는 병리적인 특성을 고려한 뒤 이타적 망상 변인을 기존의 투자모델에 추가하여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투자 모델을 통해 데이트 관계의 지속과 종료를

예측해 보고자 하였다.

방 법

연구절차

예비연구. 투자모델척도가 한국어로 타당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번역작업을 하였고, 연구자가 조작적 정의를 통해 구성한 이타적 망상 문항에 대한 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해 데이트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30명을 대상으로 선행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후 신뢰도 분석과 요인분석을 통해 한국어 투자모델척도와 이타적 망상 척도문항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과거 또는 현재 데이트폭력을 경험했던/경험하는 20대 여성으로 연구참여자를 제한하여 투자모델척도, 폭력경험척도, 이타적 망상척도를 담은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연구참여자의 대부분은 서울, 경기지역(95%)에 거주하고 여대생(57%)과 직장인(36%)이었다.

척도

폭력경험. Gelles와 Straus(1990)가 개발한 갈등대처척략(Conflict Tactics Scale)과 김정란(1999)의 연구를 바탕으로 이송월(2006)이 구성한 데이트폭력 경험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2문항으로 심리적폭력(11문항), 신체적폭력(7문항), 성적폭력(4문항) 정도를 묻는다. 매우 자주(1)에서 없음(5)까지 오점 리커트 척도이며 점수가 낮을수록 폭력을 자주 경험하였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타당도 계수는 .82이었다.

투자모델척도. Rusbult등(1998)이 개발한 투자모델(Investment Model Scale) 척도를 번안하여 이용하였다. 이 척도는 네 가지 항목(헌신/관계만족도/대안의 질/투자정도)에 걸쳐 2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남녀간, 인종간, 성적정체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Blackwell et al., 2003). 예비연구 참여자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만족=.93, 대안=.83, 투자=.82, 헌신=.87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만족=.92, 대안=.76, 투자=.87, 헌신=.77로 나타났다.

이타적 망상척도. 기존연구와 미디어를 통해 피해자들이 보고하는 망상과 관련된 태도를 바탕으로 총 6개의 문항(내가 연인의 폭력적인 면을 변화시킬 수 있다, 내 연인이 아무리 폭력적이어도 내가 끝까지 참고 견디면 결국에는 좋아질 것이다, 나는 연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존재이다, 나의 노력과 사랑으로 폭력적인 연인의 성향을 변화시킬 수 있다, 나머지 내 연인을 떠날 수는 없다, 내가 조금만 더 희생하면 내 연인은 변할 것이다) 을 구성하였다. 데이트폭력 피해자 30여명을 대상으로 이타적 망상에 관한 문항을 물었고 요인분석을 통해 문항의 일관성을 확인하였다. 예비연구에서 나타난 내적 일치도 계수는 .86이고 본 연구에서는 .83으로 나타났다.

관계종료척도. 피해자가 연루된 폭력적인 관계가 종료되었는지, 또는 현재 만나고 있는지 여부를 '(1)현재 만나고 있다 (2)헤어졌다' 로 나누어 물었다.

본 연구의 연구모델

폭력경험(22문항)을 요인분석한 결과 신체/심리폭력, 성적폭력 두 요인으로 묶였고 헌신(10문항) 역시 두 범주로 분류되었다.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실시한 결과 표본적절성 측정치인 Kaiser-Meyer-Olkin(KMO) 값은 .68로 적절한 수준이었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통계치의 유의수준이 .05보다 작아(.00) 자료의 상관성이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요인은 전체변량의 35.66%를 설명하였는데 제 1요인은 전체변량의 22.40%를 차지하였다. 내용은 신체적 폭력 및 심리적 폭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2요인은 전체변량의 13.29%를 설명하며 내용은 성적폭력에 관한 것이다.

헌신 역시(7문항) 주성분분석을 실시한 결과 KMO값이 .85로 높았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통계치의 유의수준 역시 .00으로 요인분석에 적합하였다. 두 요인은 전체 변량의 72.69%를 설명하고 제 1요인은 56.73%를, 제 2요인은 15.96%를 차지하였다. 제 1요인은 관계유지를 위한 헌신과 관련되어있고 제 2요인은 헤어졌을 경우 대안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위와 같은 결과에 따라 데이트 폭력 요인을 신체/심리적 폭력과, 성적폭력으로 나누었고 헌신 역시 관계 유지를 위한 헌신, 대안 평가절하로 나누어 모델을 구성하였다. 그 후 만족도, 대안, 투자정도 세 변인으로 구성된 기존의 투자모델과 만족도, 대안, 투자정도, 이타적망상 네 변인으로 구성된 새로운 투자모델을 비교하여 어떠한 모델의 설명력이 더 높은지 살펴해보았다. 또한 투자모델이 관계지속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아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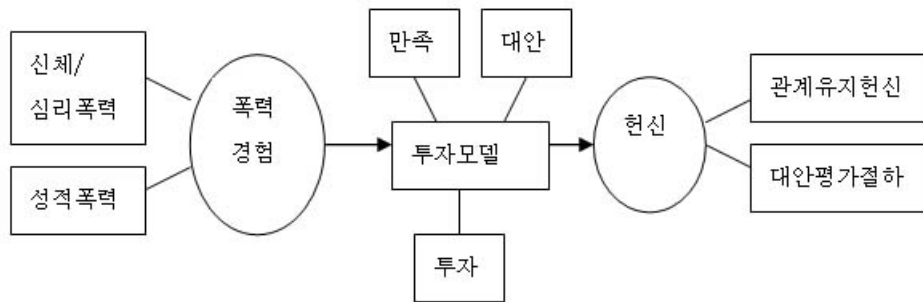
자료분석

AMOS(Analysis of Moment Structure) 4.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공변량구조모형을 검증하였다. 또한 SPSS 12.0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참여자의 폭력경험 실태, 인구통계학적 특성, 교제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투자모델/이타적 망상과 관계지속 간의 관계를 각각 알아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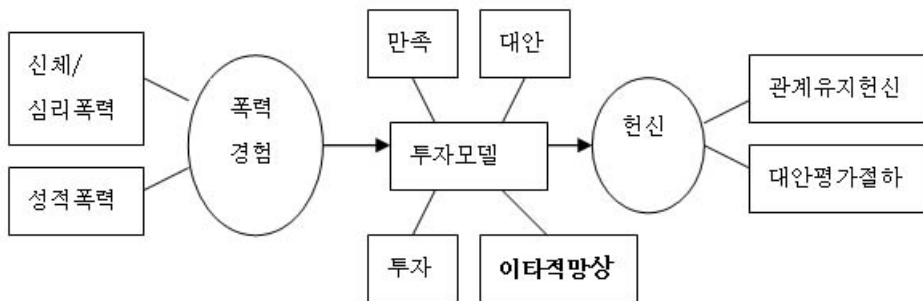
결 과

총 288명으로부터 본 연구의 설문지를 수거하였고 사용할 수 없는 자료 55부를 제외한 227명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227명이 경험한 전체폭력평균 지수는 4.75, 중앙값은 4.84로 나타났다. 하지만 데이트폭력 피해자라고 정의 내리기에는 경미한 문항, 이를테면 ‘못마땅한 표정을 지은 적이 있다’ 또는 ‘침묵으로 저항한 적이 있다’와 같은 것은 보통의 인간관계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문항에 ‘가끔(4점)’이라고 응답한 경우까지 데이트폭력 피해자라고 정의 내리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전체폭력평균의 중앙값인 4.84를 데이트폭력 피해자 여부를 가리는 절단 값으로 상정하고 4.84 이하의 참여자 110명을 ‘데이트폭력 피해자’로 하였다. 이후의 분석은 데이트 폭력 피해자 110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a. 기존의 투자모델 (그림 2)



b. 새로운 투자모델 (그림 3)

기존 투자 모델과 이타적 망상을 추가한 새로운 모델의 비교

기존 투자모델의 공변량구조모델의 부합치를 살펴본 뒤 이타적 망상 변인을 추가한 새로운 투

자모델의 모델부합치를 보았다(표1). 기존모델과 새로운 투자모델의 PFI차이는 .89-.87=.02로 나타났다. PFI가 .60 이상이고 두 모델들간의 차이가 .06에서 .09 사이이면 두 모델 간 실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Williams & Podsakoff,

표 1. 기존의 투자모델과 새로운 모델의 최종모델 부합치

	df	χ^2	GFI	AGFI	PFI	CFI	RMSEA
기존모델 부합치	12	31.91	.93	.83	.87	.87	.12
새 모델 부합치	18	37.11	.92	.85	.89	.88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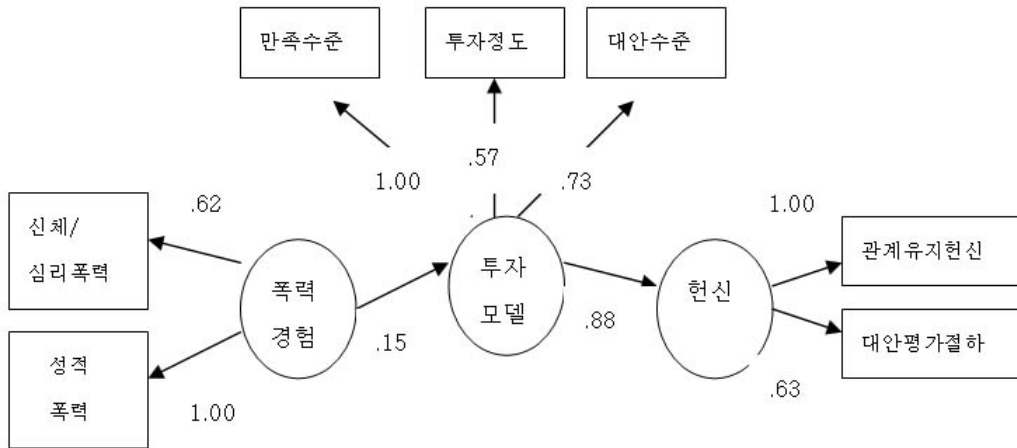


그림 4. 기존 투자모델의 최종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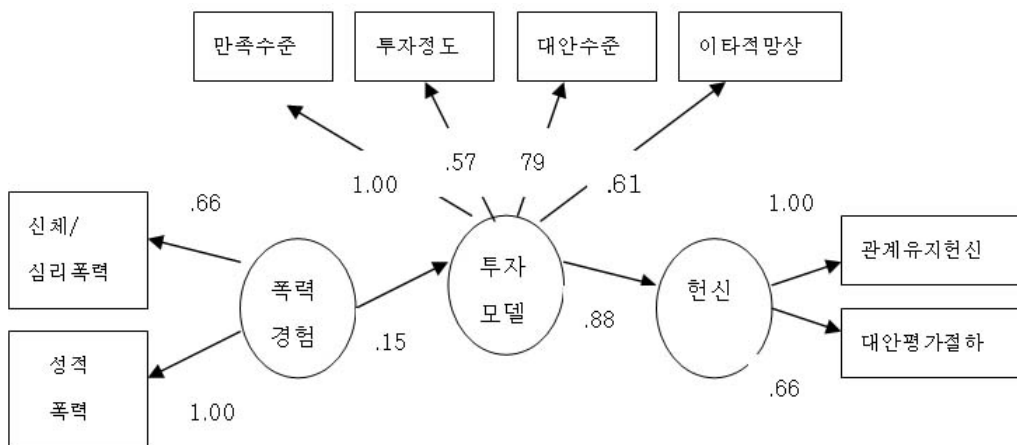


그림 5. 새로운 투자모델의 최종모델

1989) 이 경우 간명한 모델을 더 적합한 모델로 선택한다. 본 연구의 두 모델은 그 구간은 벗어나므로 수정한 새 모델이 더 적합하다고 판정하였다.

그림 4와 그림 5는 두 모델의 최종모델이다.

새로운 투자모델을 통한 예측

다음으로 새로운 투자모델이 관계종료/유지 여부를 설명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교차항을 만든 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산출된 모형의 적합도는 Hosmer와 Lemshow의 χ^2 값으로 .00에 따른 유의확률은 1.00이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로지스틱 회귀모형이 적합하다’는 영가설을 채택하였고 본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적합한 모형임을 알 수 있었다.

로지스틱 회귀식에 대한 χ^2 의 값은 125.79($df=97$)이고 이에 따른 유의확률은 .02이므로 영가설을 기각하였다. 추가적으로 새로운 투자모델이 관계종료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로지스틱 회귀식이 얼마나 관계종료 여부를 정확히 분류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

표2에 따르면 회귀식이 98.1%의 정확도로 관계종료여부를 분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타적 망상 변인이 단일변인으로서 관계유지/종료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분석결과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출된 모형의 적합도는 Hosmer와 Lemshow의 χ^2 값으로 .00에 따른 유의확률은 1.00이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로지스틱 회귀모형이 적합하다’는 영가설을 채택하였고 본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적합한 모형임을 입증되었다. 로지스틱 회귀식에 대한 χ^2 의 값은 24.71($df=30$)이고 이에 따른 유의확률은 .01이므로 영가설을 기각하였다. 추가적으로 이타적 망상 변인이 관계지속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로지스틱 회귀식이 얼마나 정확히 분류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

표3에 따르면 회귀식이 73.4%의 정확도로 이타적망상에 따른 관계유지/종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예측도-새로운 투자모델

실제	예측도		정확히 분류된 비율
	관계종료여부		
	헤어졌다	만난다	100.0
관계종료여부	헤어졌다	0	94.4
	만난다	2	34
			전체 98.1

표 3. 로지스틱 회귀모형에 의한 분류가능도-이타적망상

실제	예측도		정확히 분류된 비율
	관계종료여부		
	헤어졌다	만난다	100.0
관계종료여부	헤어졌다	4	94.4
	만난다	25	13
			전체 73.4

논 의

본 연구는 폭력적인 데이트관계를 종료하는데 있어 기존의 투자모델이 한국에서도 적용되는지의 여부와 기존의 투자모델에 이타적 망상변인을 추가한 새로운 투자모델의 타당성을 살펴보았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투자모델은 한국의 20대 여성들의 데이트 관계에서도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트폭력을 경험한 후 피해자들은 관계 안에서 느끼는 만족도, 가지고 있는 대안, 관계에 투자한 정도에 따라 헌신수준을 결정하였다. 외국에서 진행된 선행연구 결과와 같이 관계에 만족하는 상태에서 대안의 질이 낮고 관계에 과도하게 투자한 경우에는 헌신수준이 증가하고 관계에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hatigan & Street, 2005; Choice et al., 1997).

둘째, 이타적 망상 변인을 넣은 모델이 기존의 모델보다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보아 데이트폭력 피해자들이 이타적 망상, 즉 자신이 폭력적인 파트너를 바꿀 수 있다는 과장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더 헌신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양상은 사회심리학에서 말하는 인지부조화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설명할 수 있는데 데이트폭력 피해자는 자신에게 괴로움을 주는 사람에게 헌신을 할 때 이것을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합리화를 한다(Mills et al., 1998). 즉, 행동과 태도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행동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 것이다. 보통 데이트 폭력 피해자는 그들 자신에게 문제가 있어서 헌신하는 것이라고 비난을 받지만 병리적인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도 폭력적인 관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

고, 관계가 깊어질 경우에는 이미 자신의 투자 정도가 높고, 관계를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태도를 변형함으로써 인지부조화를 해결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새로운 투자모델이 관계유지/종료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그 예측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이타적 망상이 있는 데이트 폭력 피해자가 만족, 대안, 투자를 고려하고 이타적 망상 수준에 따라 헌신정도를 결정한 뒤, 관계를 종료하거나 유지한다는 본 연구의 가설이 매우 타당하다는 것을 뜻한다.

본 연구를 통해, 데이트 폭력의 빈도, 그 수준의 심각성, 관계를 종료하지 못하는 이유를 확인할 수 있었다. 데이트폭력은 그 자체만으로도 피해자에게 신체적, 심리적 상흔을 남겨 큰 문제가 되지만, 가정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예방과 치료가 시급한 이슈이다. 실제로 데이트 폭력 관계에 있는 커플이 결혼하게 되면 여성은 아내폭력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러 연구에서 파트너의 폭력성을 알면서도 관계를 종료하지 못하고 결혼을 하는 피해자의 비율이 높다는 것이 밝혀졌다(장희숙 등, 2001). 따라서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돕는 것은 가정폭력을 예방한다는 점에서도 의미 있는 작업이다.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에게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데이트 폭력 피해자에게 왜 관계를 종료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비난보다는 투자모델에 비추어 보았을 때 어떤 측면에서 피해자가 관계에 만족해왔는지, 관계에서 개인이 바라는 요소 가운데 어떠한 것이 충족되었는지 파악해야 한다. 그 후, 대안의 장/단점, 대안의 질, 이 때까지 피해자가 관

계에 투자한 정도, 관계를 떠날 때 자신이 잃게 될 것과, 얻게 될 것, 관계에 남을 경우 앞으로의 대가(cost)는 얼마나 되는지 고려하도록 돕는다. 피해자가 객관적인 시각으로 냉정하게 자신의 관계를 돌아보고 인지구조를 재 체계화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볼 수 있다.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이 현신, 관계지속의 대가가 본인이 지각하는 것보다 더 많으며 현재 맺고 있는 관계 이외의 대안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관계가 나아질 거라는 비현실적인 희망을 버리고, 피해자의 내면 안에 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는 힘이 있음을 스스로 지각하면서 파트너를 떠날 것이다.

본 연구는 데이트 폭력의 실태와 가해자, 피해자의 특성에 대한 연구를 뛰어넘어 데이트폭력 피해자가 관계를 종료하지 못하는 원인을 파악하고자 한 실험적 시도의 일환이다. 그 결과 투자모델의 효용성을 파악하였고 한국의 상황에서 특수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가정한 이타적 망상 변인의 효과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몇 가지 한계점이 있으므로 그 한계점을 수정한 후속연구를 제안하는 바이다.

첫째, 피해자들의 교제기간을 통제하지 않았다. 오랜 기간 동안 교제할 경우 관계가 깊어지고 투자한 양도 상대적으로 늘어나게 마련이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투자모델의 하위요인인 만족, 투자, 대안의 양과 질이 변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그러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데이트폭력 피해자가 지각하는 투자, 대안, 만족, 이타적 망상에 대해 횡단적으로 측정하였다. 이에 새롭게 데이트관계를 시작한 사람들을 연구참여자로 모집하여 여러 시기로 나누어 데이트 관계에 대한 지각을 측정하는 종단적

인 연구를 제안하는 바이다. 그리하여 데이트 폭력을 경험하는 연구참여자들과, 그렇지 않은 연구참여자들로 나누어 그들이 관계에 대해 어떠한 평가를 내리는지 구분하여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이성애 미혼 커플만을 대상으로 하여 동성애 커플이나, 기혼커플의 경우 투자모델의 타당성을 파악하지 못했다. 외국연구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커플에게서도 타당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국내상황에서는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투자모델을 남자피해자에게 적용해볼 수 있다. 남녀가 성희롱 문제에 있어 지각차를 보이는 것처럼(김정인, 최상진, 손영미, 2001) 남성피해자의 경우에도 실제폭력과 지각된 폭력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파트너의 폭력이 남성에게 있어서도 위협적으로 다가오는지, 폭력적인 관계일 경우 종료하는 것이 여성피해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쉬운지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는 평범한 대학(원)생과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성향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개입이 필요한, 심각한 데이트 폭력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투자모델을 적용하였을 때에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비교연구가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김용미 (1996). 미혼 대학생의 혼전 단계에서의 신체적 폭력의 경험에 관한 실태 조사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1), 187-197.
- 김정란 (1999). 대학생의 이성교제 중 폭력과 대처행동.

- 전남대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정인, 최상진, 손영미 (2001). 성희롱문제 지각에서 성차 및 성역할태도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6(3), 1-22.
- 유선영 (2000). 여대생의 가정폭력 피해와 이성교제폭력 피해간의 매개요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송월 (2006). 이성교제폭력의 가해와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장희숙, 조현각 (2001). 대학생 이성교제폭력의 실태와 위험요인들. *한국가족복지학*, 8, 177-202.
- 전석균 (2003). 정신병리. 서울: 하나의학사.
- Arias, I., & Pape K. T. (1999). Psychological abuse: Implications for adjustment and commitment to leave violence partners, *Violence Victims*, 14(1), 55-67.
- Blackwell, L. B., & Agnew, C. R. (2003). Commitment and its theorized determinants: A meta-analysis of the investment model. *Personal Relationships*, 10, 37-57.
- Choice, P., & Lamke, I. (1997). A conceptual approach to understanding abused women's stay/leave decisions, *Journal of Family Issues*, 18, 290-314.
- Coker, A. L., Smith, P. H., Mckeown, R. E., & King, M. J. (2000). Frequency and correlated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by type: physical, sexual, and psychological battering,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0, 553-559.
- Erickson, E. H. (1950).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Norton.
- Follingstad, D. R., Brennan, A. F., Hause, E. S., Polk, D., & Rutlaedge, L. (1991). Factors moderating physical and physiological symptoms of battered women. *Journal of Family Violence*, 6, 81-95.
- Gelles, R. J., & Straus, M. A. (1990). *Intimate violence: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abuse in the American family*. New York, Simon and Schuster.
- Jasinski, J. L., & Williams, L. M. (1998). *Partner violence: A comprehensive review of 20 years of research*. Thousand Oaks, CA: Sage.
- Katz, J., Kuffel, S. W., & Brown, F. A. (2006). Leaving a sexually coercive dating partner: a prospective application of the investment model,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30, 267-275.
- Makepeace, J. M. (1981). Courtship violence among college students. *Family Relations*, 30, 97-102.
- Mills, R. B., & Malley-Morrison, K. (1998). Emotional commitment, normative acceptability, and attributions for abusive partner behavior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3, 682-699.
- Rhatigan, D. L., & Street, A. E. (2005). The impact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on decisions to leave dating relationships, a test of the investment model.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0(12), 1580-1597.
- Rhatigan, D. L., Moore, T. M., & Stuart, G. L. (2005). An investment model analysis of relationship stability among women court-mandated to violence intervention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9, 313-322.
- Resnick, H. Kilpatrick, D. G., Dansky, B. S., Saunders, B. E., & Best, C. L. (1993). Prevalence of civilian trauma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a representative national sample of women.

-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1, 984-991.
- Rosen, K. H., & Bezold, A. (1996). Dating violence prevention: A didactic support group for young women.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Psychology*, 74, 521-525.
- Rusbult, C. E. (1983). A longitudinal test of the investment model: the development and deterioration of satisfaction and commitment in heterosexual involvem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5(1), 101-117.
- Rusbult, C. E., & Martz, J. M. (1995). Remaining in an abusive relationship: an investment model analysis of nonvoluntary dependenc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1(6), 558-571.
- Rusbult, C. E., Martz, J. M., & Agnew, C. R. (1998). The investment model scale: measuring commitment level, satisfaction level, quality of alternatives, and investment size. *Personal Relationships*, 5, 357-391.
- Shook, N. J., Gerrity, D. A., Jurich, J., & Segrist, A. E. (2000). Courtship violence among college students: a comparison of verbally and physically abusive couples. *Journal of Family Violence*, 15(1), 1-22.
- Sugarman, D. B., & Hotaling, G. T. (1989). Dating violence: Prevalence, context and risk markers. *Violence in Dating Relationships*, 3-33.
- Stets, J., & Pirog-Good, M. A. (1989). Patterns of physical and sexual abuse for men and women in dating relationships: A descriptive analysis. *Journal of Family Violence*, 4, 63-76.
- Williams, L. J., & Podsakoff, P. M. (1989). Longitudinal Field Methods for Studying Reciprocal Relationships in Organizational Behavior Research: Toward Improved Casual Analysis.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11, 247-292.

원고접수일: 2007년 7월 15일

수정원고접수일: 2007년 9월 14일

게재결정일: 2007년 9월 28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07. Vol. 12, No. 4, 983-995

The Correction of the Investment Model Regarding the Maintenance of Violent Dating Relationships focus on Altruistic Delusion

Jung Eun Lee Myoung-Ho Hyun
Chung-Ang University

Jae-Min Yoo
Kangnam University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validity of the investment model accompanied by the altruistic delusion variable when dating violence victims maintain their violent relationships. The investment model states that dating violence victims consider their satisfaction level, quality of alternatives, and investment level to determine their commitment level in their relationship. And those variables contribute to the maintenance of their relationship. The altruistic variable is dating violence victims' belief that they can change their partners' violent behaviors by themselves. South Korean women who were in their 20s (N=227) provided self-reported data, and 110 people were endorsed as dating violence victims according to the researcher's standard. The investment model turned out to be effective when applied to South Korea's victims of dating violence who were maintaining their relationships. Also, the new investment model which is composed of the past investment model and altruistic delusion variable had a better prediction to explain the reasons victims' did not leave their violent relationships. In the following studies, the investment model should be applied to homosexuals, married couples, male victims, and other participants who have a different social economic status to generalize the investment model's validity.

Keywords : dating violence, investment model, altruistic delusion